



롤스-로이스, 글로벌 동력시스템 분야의 한국 파트너

롤스-로이스는 40 여년전 대한항공의 전신인 대한국민항공사에 YS11, F27, F28 항공기용 Spey 와 Dart 엔진 공급을 시작으로, 이후 대한항공에 F100, GIV 항공기용 Tay 엔진 공급으로 한국과의 인연을 지속하며 지금은 항공사뿐 아니라 육해공군과 조선업체에까지 활동영역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고 있다.

현재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, 정부기관 및 대한민국 육해공군에서 운용 중인 300 대 이상의 항공기에 대해 500 대 이상의 롤스-로이스 엔진이 사용되고 있다.

롤스-로이스는 서울에 그룹 지사를 두고 있으며, 부산에 해양·선박 법인을 두고 롤스-로이스가 100% 운영하는 갑판기계 등의 장비 제조, 조립, 시험 마케팅 및 애프터 서비스를 담당하는 해양장비공장 갖추고 있다. 약 80 명 이상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이 공장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조선업체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. 아울러 해외 오프쇼어 업체와 한국업체들이 건설한 오일/가스 탐사 및 생산 시설 그리고 한국 석유화학 공장에 가스터빈을 공급하고 있다.

롤스-로이스는 한국을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장기적 협력 파트너로 보고, 국내 사업운영 방식으로써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 생산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.

삼성테크윈은 롤스-로이스의 국내 파트너사로서 2001 년 서명한 장기계약 하에 롤스-로이스가 생산하는 에어버스 A380 항공기 Trent 900 엔진의 연소실 모듈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. 이 계약은 삼성테크윈이 일본과의 격심한 경쟁을 뚫고 이뤄낸 성과로서 이 핵심 기술이 롤스-로이스 외부로 이전된 것은 유례없던 일이다. 이외에도 Adour 연소기 라이너로 민수용과 군용 엔진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.

또한, 삼성테크윈은 국내에서 운용되는 롤스-로이스 T56, Gem, Model 250 엔진 정비를 맡아 엔진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. 이를 계기로 롤스-로이스는 더 많은 기업과 협력을 모색해 한국을 경쟁력 있는 항공엔진 부품의 글로벌 조달기지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.

롤스-로이스는 자사의 T800 엔진을 한국형 헬리콥터(KHP)에 공급하는 등 국방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고자 적극 나서고 있다. 롤스-로이스는 국내 기업과의 공동생산을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. 이는 국내에 생산활동 증가, 고용 창출, 수출 증가 및 기술 이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.

또한 대한민국 해군의 KDXIII 이지스함에 공급할 AG9140 가스터빈을 라이선스 하에 삼성테크윈에서 제작하고 있다. 이 외에도 롤스-로이스의 워터제트, 프로펠러, 변속장치, 기계 제어 시스템, 갑판기계 등은 현재 대한민국 해군, 해양경찰 및 해안 경비대에서 운용되고 있거나 운용될 계획이다.

롤스-로이스는 주요 시장, 특히 한국에서의 기술 연구 개발 프로젝트 수행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. 항공엔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롤스-로이스는 한국기계연구원(KIMM), 한국항공우주연구원(KARI)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. 최근에는 지난 2005 년 5 월에 부산대학교 및 부산광역시와 항공, 해양·선박 및 에너지 시스템에 적용될 초효율 초경량의

차세대 열교환기 개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MOU 를 체결했다. 이는 롤스-로이스가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투자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곧 실질적인 계약이 이뤄질 예정이다.

이외에도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롤스-로이스는 2004 년부터 부산대 학생들에게 6 개월간 본사 현지 인턴십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. 지난 6 월 두번째 인턴십 학생들을 파견했으며 이들은 올해말까지 롤스-로이스 영국 본사에서 인턴십 과정을 수행한다.

롤스-로이스는 육상, 해상 및 공중에서 운용하는 모든 동력 장치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동력 시스템 제조업체이다. 민간 및 방위 항공우주, 해양·선박, 에너지, 총 4 개 사업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엔진 설비 기반에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다.

현재 54,000 대의 가스 터빈이 전세계적으로 운용 중이며, 상위 50 개 항공사 중 42 개 항공사를 포함해 500 개 이상의 항공사, 4,000 개의 기업 및 다목적 항공기 및 헬리콥터 운용업체, 160 개국의 군대, 70 개국의 해군을 포함한 2,000 개 이상의 해양업체 등 광범위한 고객 기반을 갖추고 있다. 또한 120 개 국가에 에너지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.

롤스-로이스의 연간 매출은 약 60 억 파운드(약 110 억달러)에 달하며, 그 중 55%는 서비스 수익이다. 주문대장(order book)은 210 억 파운드 (약 390 억달러)를 넘어섰다.

롤스-로이스는 기술, 능력 및 인프라 부문의 투자를 통해 경쟁자들에게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. 무엇보다도 사업의 장기적 특성을 고려할 때 390 억 달러 규모의 주문대장(order book)과 애프터마켓 활동 등은 회사의 향후 사업 수준을 가능할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한다.

해양·선박 부문에서 롤스-로이스는 해군의 주요 신규 사업인 미해군 DD(X) 시험선과 영국형 45 구축함의 동력을 공급하고 있으며, 상용 부문 신규 제품을 확보하고 있다.

에너지 부문에서 산업용 Trent 가 원유 및 가스, 발전(power generation)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. 또한 롤스-로이스는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연료 전지 기술을 통해 분산용 동력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.rolls-royce.com을 참조.

기타 참고자료:

‘Trent 엔진 소개자료’

‘롤스-로이스 방위 항공우주 사업 소개자료’

문의:

CPR

차유정 이사 02-739-7353 / 011-328-9643 / junecha@icpr.co.kr

추윤희 팀장 02-739-7366 / 016-395-4656 / katechoo@icpr.co.kr

박수진 02-739-7349 / 011-9279-5077 / sjpark@icpr.co.kr